

W_F_727

천지연 교룡과 여의주

2019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송산동(보목동) 한기팔 씨 댁, 문순덕 · 김은정 조사.
한기팔(남, 1937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 서귀포시 보목동 출생으로 대학과 군대생활만 타지에서 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보목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서귀진에 어여쁜 여자가 있었는데 마을 총각들이 모두 그녀를 좋아했지만 서귀진 성장의 아들이 유별났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법환리 강씨 집으로 시집을 보냈다. 상심에 빠진 성장의 아들은 그녀가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라도 그녀를 보려고 기다리다 그녀를 보자 안아버린다. 이 순간 그녀는 성장의 아들을 밀쳐버리는데 그때 교룡이 나타나 그를 감싸 안고 여의주를 두고 사라진다. 그녀는 정신을 차린 후 여의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집안이 부유해졌다. 이후 천지연에서 교룡이 우는 소리가 사라지고 무태장어가 나타났다.

[조사자] 어떻 천지연에서 용이 나와마씀?

[제보자] 응. 용이 나와.

용이 나오면 자꾸 천지연 뒤에 다리가 아니라 개울이 잇엇거든. 개울 천지연 떨어지는 폭포 그딜로 지나가는 사람을 용이 물어서 하늘 올라가 버리고 그러는 데 그 용을 그런 거 못하게.

[조사자] 죽일려고예.

[제보자] 죽여서 죽인 그것이 지금 여기 가면 무태장어, 무태장어가 거기 서식을 한다고.

[조사자] 용 죽인 것이?

[제보자] 죽인 것이 무태장어.

[조사자] 무태장어로 나타나는구나예.

[제보자] 응.

[조사자] 무태장어 여기만 잇어마씀?

[제보자] 응. 천지연 교룡. 옛날 천지연에는 때를 못 만나 하늘로 오르지 못한 이무기가 살고 잇었주. 비가 오려거나 바람이 불어 스산한 날이면 이 교룡이 우는 소리가 천지연 너머 서쪽 삼현방까지 들렸다고 해. 그런 교룡은 가끔 비가 오거나 바람

이 부는 날에는 천지연 쪽 절벽 위로까지 올라가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고 천지연 연못속으로 사라져 불어.

옛날 이곳 서귀포는 홍로성을 서귀포로 옮겨 진을 치면서 서귀진이라 헛인디 이 마을에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착하고 학문이 넓고 행실이 밝은 규수가 살고 잇었어. 소문은 서귀진뿐만 아니라 이웃마을까지 알려져 그녀를 마음에 드는 총각들이 많았주. 그중에는 서귀진 성장 아들도 잇어난.

나이가 열아홉이 되자 그 처자 아방이 그런 총각들의 성화와 상관없이 이웃 법환리 강씨댁으로 시집을 보내고 말아불언게. 그렇게 되자 그녀를 마음에 두었던 모든 총각들은 막 서운행 헷일 거 아니냐게.

특히 서귀진 성장의 아들이 속상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주. 그 일로부터 서귀진 성장의 아들은 싸움질을 방탕하며 허송세월로 나날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두었던 여인을 만나볼까 하여 막 방황을 햇어.

겐디 시집을 간 새댁은 요조숙녀로서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결혼생활 햇주. 시부모에 대한 효도와 일가친척이 화목하고 예의범절도 잊고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고 잇었주.

경헌디 어느 날, 추수가 끝나고 햇곡식으로 빚은 술과 떡을 장만하여 오랜만에 나들이로 친정을 갓주. 겐디 오는 길에 서귀진 성장의 아들 총각이 어떻사 알았인디사 때를 놓치지 않고 법환으로 가는 천지연 길목에서 기다리고 잇어난 거라. 날이 어슬어슬할 무렵에 새댁이 가는 길은 으스스햇주. 새댁은 걸음이 점점 총총 빨라졌주. 겐디 어디서 불쑥 나타나는 사람이 잇인 거라. 서귀진 성장의 아들이 주. 그의 거동에 화들짝 놀라며 외진 곳에서게. 남정네를 만나니까 얼마나 몸이 오싹하고 소름끼칠 거라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한 거라. 그 순간 성장의 아들이 달려들더니 새댁을 풀밭으로 끌고가 눕혀놓고 끌어안으며 막 막 애걸한 거라이.

“난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소.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오.”

허멍 점점 서귀진 성장의 아들이 팔을 조여들며 이상한 눈빛이 그녀의 눈과 마주치난게 새댁이 몸을 영 비틀멍 저항하며 오들오들 떨멍

“이 팔 놔요. 이게 무슨 행패요. 나는 이제 남의 아내가 된 몸이요. 그러니 어

서 이 팔을 풀어주시오!”

겐디게 그러면 그럴수록 남정네의 팔이 점점 조여들며 숨소리가 거칠어지멍
“여긴 지금 아무도 없소. 그러지 않으면 당신을 앓고 저 천지연 물바닥으로 뛰어들어 같이 죽고 말 거요.”

하며 와락 다시 여인을 껴안아 분 거 아니. 그 순간 새댁이 성장의 아들로부터 팔을 빼고 몸을 팍 밀쳐부난 청년은 넘어지멍 허우적대고 잇이난 물속에서 갑자기 머리를 들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교룡이 달려들어 그 청년을 물고 바닥을 치며 하늘로 올라가 분 거라.

젊은이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디 교룡이 사라지는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멍 새댁은 정신을 차령 보난 발 밑에 환하게 빛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구슬이 널려 잇인 거라이. 그것이 여의주지. 여의주는 얻으면 온갖 조화를 누릴 수 있다는 신비스런 구슬이라. 알지이? 용이 아래턱 뼈에 있는 야광주를 말하는 거라이.

“교룡님. 고맙습니다.”

새댁은 막 소리를 지르며 구슬을 품에 넣었지게. 새댁은 그 여의주 가정 밤길을 환하게 밝히멍 시집으로 돌아오게 됧언디 이날로부터 새댁의 시집 생활은 점점 넉넉하고 부유해진 거라. 아들딸도 많이 낳아 자식들 모두가 입신양명 출세하고 막 이름도 빛내곡 모든 일이 잘텐 거라.

사람들은 법환마을 강씨댁이 대대 번창하니까 며느리덕이렌 허멍 막 하영들 칭송하고 헛주. 그런 일이 있던 다음부터 천지연에서 교룡 우는 소리가 사라지고 무태장어가 바다에서 올라와 마음 놓고 해엄치멍 살았다고 전해져.

- 핵심어: 성장, 규수, 무태장어, 교룡, 여의주, 법환리, 강씨댁, 천지연